

[종합·해설]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총장 유력

손병두 총장도 막판까지 거론…오늘 발표

李 당선자 복지시설 방문 외부활동 재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4일 모처럼 만의 주말 휴식을 마치고 외부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21일 오후부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전날까지 2박3일간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지인들과 테니스를 치는 등 잠시 일상'에서 벗어났던 이 당선자는 이날 복지시설 방문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오전 은평구 응암2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선덕원은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5년 12월 24일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깜짝 방문'했던 곳으로, 이날 방문은 당시 한 어린이가 "꼭 대통령이 꽈서 다시 찾아 달라"고 부탁한 데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당선자는 이어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인근 '당선자 관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회동을 갖고 정

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저녁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와 세 딸 내외, 아들, 손자 등 가족들과 함께 성탄 전야를 보냈다.

그는 25일에는 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본 뒤 특별한 일정 없이 측근들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방안을 최종 조율하는 등 향후 정국구상을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이경숙(64·여·사진) 숙명여대 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당선자 핵심측근은 이날 "(이 당선자가) 이경숙 총장과 손병두 서강대 총장 두 사람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이 총장 발탁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을 방문, 컴퓨터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장은 서울 출신으로 4선의 총장 연임에 따른 포용력이 높게 평가 받고 있으며 이 당선자의 정책을 잘 알고 있으며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이 총장이 인수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사상 첫 여성 인수위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손병두(66) 서강대 총장도 여전히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러나 인수위원장 등이 결정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고사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형준 대변인은 "오늘(24일) 인수구성이 결정되면 내일 오후쯤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취재경쟁을 줄이기 위해 엠바고를 걸고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해 인수위 구성이 거의 완료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인수위원장 등이 결정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복지기자 jkpark@연합뉴스

취임 후 공익재단 설립 유력

■李 당선자 재산 환원 어떻게?

대선 선거 과정의 방송 연설을 통해 '전재산 사회화원'의 뜻을 밝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재산환원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구성은 비롯해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이미 기정사실화한 재산 사회화원을 먼저 추진할 경우 자칫 '포퓰리즘(대중영향주의)'이라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측근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은 산적한 정책 현안을 비롯해 긍한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재산 환원의 경우는 이미 원칙이 정해져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단 이 당선자가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 놓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까지는 논현동 자택을 제외한 전 재산이 현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추산되는 환원 재산 규모는 300억 원 정도.

지난달 26일 대선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한 당선자의 재산은 약 353억 원 규모로 논현동 주택이 51억 원이었으며 이밖에 서초동 빌딩 2채(약 60억 원), 양재동 빌딩(약 68억 원) 등이 재산리스트에 올랐다.

구체적인 현납 시기와 방식은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고 있지만, 취임 이후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당선자가 어린 시절 지속한 가난을 겪었고 고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만들어 불우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며 "급한 현안이 마무리되면 지인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1월 중순 이후 재산 현납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측근들은 "순전히 당선자 개인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굳이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현납된 재산을 운영할 시민사회 단체 성격의 위원회라면 모를까, 우리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공천의 공자도 꺼내지 말라" 경고

李 당선자, 강대표 회동서 당정청 논란 조기 진화

"전작권 전환, 북핵 폐기와 연계"

李 당선자 "2011년쯤 상황 평가 후 본격 논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북핵문제 해결상황과 연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반도 비핵화 외에 한국의 주국방능력,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1년께 본격적인 평가와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이어서 정권 초반부터 이 문제가 한미간 군사외교 분야의 쟁점으로 부상하진 않을 전망이다.

이 당선자측 핵심관계자는 24일 연

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까지도 한반도에 핵이 존재한다면 전작권이 양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핵없는 한반도라는 대전제가 반드시 충족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핵단국방정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이 이뤄질 경우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이 위축되지 않을지, 전작권이 양이 한미동맹 등 여러 상황에 비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등 조건도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후보시절 '전작권 전환 재검토'란 입장을 파악한 것에 대해 "국가간 맺은 협상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2012년 4월이라는 전환시기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들면 전환시기를 2~3년 더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권·대권 분리 폐지 주장으로 대선 직후부터 촉발된 한나라당 내 갈등 기류가 24일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강재섭 대표간의 회동으로 조기에 진화될지 주목된다.

이 당선자는 이날 회동에서 논란의 핵심인 당권·대권분리 폐지 등 당헌·당규 개정 여부와 관련, "(당정 관계가) 당헌·당규에 잘 정리돼 있는 것 같다. 당헌·당규를 고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 것 이 좋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당선자측 핵심 인사인 박태희 의원이 지난 21일 당정 일체를 위한 당권·대권 분리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후 논란이 총선 공천문제로까지 이어지며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 이처럼 당내 갈등 기류를 조기에 진화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직인수위가 출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이 벌써 내홍에 훈파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회동에서 "인문을 보니까 우리 당이 공천 문제 때문에 뭐 어떻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 당이 그런 것을 갖고 (얘기) 할 때가 아니다"고 자체를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당선자는 앞서 측근들에게도

'공천의 공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

/연합뉴스

교사임용시험?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2009 학년도 공립학교(유치원·초등·중등·보육)

교사임용시험(교사면제)에 전형으로 원활합니다.

해당유형

529-0090

공인증개사 / 주택관리사

개강 1월 2일 ■ 현대적 학습시설 ■ 과학적 평가 시스템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236-2467 전남여고 전너편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500평 규모의 난방비를 5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절감한 산 가을

난방비 1/3로 줄었다!

한정수령 예약판매
무상 자원금 혜택

전국 1위! 학생수 1위!

농산물 품질관리사 실기반

개강 12월 22일 ■ 실습으로 인한 살기대비
■ 모의고사 실시 ■ 월단위 평전정복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236-2467 전남여고 전너편

062 955-4222
080-701-7117

TEMPIA